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분석해보니

공공료·교육비 쑥쑥... 서민 압박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인 안정세 속에서도 쓰레기봉투값과 교육비 등 서비스요금이 1년 사이 크게 올라 서민가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광주가 전월비 0.1%, 전년 동월비 1.8%, 전남이 7월에 비해 0.2%, 지난해 8월에 비해 1.8%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전월비 0.1%, 전년 동월비 2.0%)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3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광주가 전월비 0.1%, 전년 동월비 1.8%, 전남이 7월에 비해 0.2%, 지난해 8월에 비해 1.8%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전월비 0.1%, 전년 동월비 2.0%)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6%)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품목별로는 전달(7월)에 비해 양상추(47.2%), 시금치(42.1%), 호박(25.7%), 복숭아(25.3%), 상추(21.8%), 수박(18.8%), 부추(16.4%) 등이 두자리수의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1년전에 비해서는 양배추(-51.9%), 수박(-45.8%), 토마토(-37.8%), 파(-31.3%), 당근(-

28.1%) 등 과채류 가격이 전체적으로 11.7%나 하락해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를 주도했다. 이같은 물가 안정세속에서도 쓰레기봉투값 등 공공서비스 요금과 교육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은 1년전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 서민가계에 주름살을 더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1년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높은 품목에 쓰레기봉투



또 자동차학원비(34.8%), 콘도미니엄 이용료(22.2%), 이삿짐운송료(16.2%), 대입학원비(13.7%), 찜질방이용료(12.1%) 등 일부 개인서비스 요금이 크게 올라 가계부담을 더했다. 광주·전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무더위와 호우 등 기상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과채류 가격이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비 선택의 여지가 적은 서비스요금이 1년동안 많이 올라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전자 휴대폰 4종 기네스북 등재 이 '2008년판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폰' 부문에 오른 삼성전자의 '울트라에디션 5.9'(가운데 및 오른쪽, 두께 5.9mm)와 '세계 최고 화소폰' 부문에 오른 '1,000만 화소폰'(왼쪽). /연합뉴스

2분기 국내 총생산 1.8% 성장

체감경기 반영 실질 국민총소득도 2.2% 상승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에 따른 금융보험업 성장에 힘입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에 비해 1.8% 성장, 14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1분기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은이 3일 발표한 '2007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에 비해 1.8% 성장해 2003년 4·4분기(2.7%) 이후 가장 높았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5.0% 성장했다.

이는 지난 7월 한은이 발표한 속보치 1.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한은은 속보치 발표 이후 입수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분기결산 자료 등을 추가로 반영한 결과 금융보험업 성장률이 1.5%포인트 상향 조정돼 GDP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2분기 실질 GDP가 호조를 보인 것은 제조업이 호조를 보이는데다 수출 역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은 반도체, 산업용 기계, 선박 및 승용차 등의 호조로 전기대비 3.6% 성장했다.

건설업은 토목건설과 건물건설이 부진하면서 전기대비 1.8%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 산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및 통신업의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금융보험업의 높은 증가에 힘입어 전기대비 1.3% 증가했다. 민간소비는 주류, 의약품 및 전기가스 등 비배구재에 대한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기기 및 영상음향기기

등 내구재 소비가 감소해 전기대비 0.8% 줄었다.

이에 따라 내수의 GDP성장 기여도는 전분기 1.3%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낮아진 반면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 -0.8%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높아졌다.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경제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GNI 증가율은 전기대비 2.2%, 작년 동기대비로는 4.7%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압류 부동산 경매전 팔 기회 준다

채무자가 직접처분 가능

앞으로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부동산 경매처분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일 국내 17개 은행 및 보증기관, 51개 상호저축은행과 협약을 맺고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기관이 담보물(부동산)에 대해 법원경매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매각기일 공고 이전까지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별로 지정

된 담당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적으로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약 1년이 소요되는 경매보다 조기매각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연체이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에서 관련 법적 절차 및 독촉을 중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기아차 8월 한달 9만 5,956대 팔았다

지난해 보다 74% 증가

기아차는 지난 8월 한달간 총 9만5천956대의 차량을 판매해 1년전인 지난해 8월에 비해 판매실적이 73.8%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내수에서는 2만3천320대가 팔려 지난해 8월 대비 51.3% 늘었고, 수출에서는 7만2천950대가 판매돼 82.4% 증가했다. 또 전달인 지난 7월과 비교할 때도 내수 15.0%, 수출 30.3% 증가하는 등 판매실적이 26.3% 증가했다.

내수의 경우 내년부터 경차로 편입되는 모닝이 2천320대 팔려 지난 7월

에 비해 40.9% 판매량이 늘었으며, 1천804대가 팔린 오프로스는 고급대형차 시장에서 1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스포티지도 3천433대가 팔리며, 소형 SUV 부문 1위를 탈환했다고 기아차는 덧붙였다.

기아차 관계자는 수출호조와 관련, "해외에서 유럽 전략형 차종인 씨드 가 1만477대 팔려 해외판매 증가를 견인했다"며 "지난 8월까지 유럽에서 8만대의 씨드가 판매된 만큼 올해 목표 10만5천대를 초과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ilee@

"금융소비자 권익 적극 보호 할 것"

신임 오수상 금감원 광주지원장

"호남과 제주 등 광활 내 금융소비권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사고예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새로 부임한 오수상(51)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은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 지역 금융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오 지원장은 지난

1984년 고려대를 졸업한 뒤 보험감독원에 입사해 금감원 통합후 비서팀장, 과리주제원, 보험검사 2국 검사기획팀장, 총무국 부국장 겸 인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임 최용수 지원장은 금감원 공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 → '윗등심' 으로 표기

롯데마트 첨단·목포점 행정처분 될 듯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을 '윗등심'으로 표기해 판매한 롯데마트 첨단점과 목포점에 대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광주출장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때 신고한 품목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한 롯데마트 첨단점과 목포점을 적발해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광산구청과 목포시는 롯데마트 첨단점과 목포점의 식육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1주일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롯데마트 첨단점과 목포점은 지난 7월19일 수입업자가 '알목심'으로 신고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 '척 아이 롤(chuck eye roll)' 부위를 '윗등심'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한우와 절단 방법이 다른 수입 쇠고기의 부위별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국내법 규정상 수입 쇠고기는 등심 부위와 안심 부위를 정확히 나눠 절단하는 한우와 달리 부위별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문제가 된 척 아이 롤도 등심이 7분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 강변점이 '알목심'을 '윗등심'으로 표시해 판매했다가 지난달 17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광진구청으로부터 과징금 518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eju Island travel packages. Title: 제주도 여행 2박 3일 89,000원. Includes details about the package, departure 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eju Air.

Advertisement for Rodem gallery. Title: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Features images of various art pieces and promotional text about the gallery's new collection.